

[14~15] 다음은 형태소 및 단어에 관한 교과서 내용과 학습활동이다. 물음에 답하시오.1)

(가) 교과서 내용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는 자립성을 기준으로 명사처럼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조사처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사용될 수 있는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와 조사, 어미, 접사처럼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A] 형태소가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라면, ‘단어’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그런데 ‘조사’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존명사도 자립성은 없지만 명사와 마찬가지로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꾸미는 말과 늘 띄어 쓰며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나) 학습활동

<자료>는 ‘용비어천가’의 일부입니다. 아래의 ‘옛말사전’을 활용하여 <자료>의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자 료>

-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펼썩**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 식미 기픈 **므른** **ㄱ므래** 아니 **그츨썩**  
(현대어 풀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끊어지므로

옛말사전

나무	명사	‘나무’의 옛말. 휴지(休止) 앞에서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공동격 조사 ‘와’ 앞에서 나타나며, 그밖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남’으로 나타난다.
은	조사	(끝음절의 모음이 ‘·, ㅏ, ㅑ’이고 받침 있는 체언류 뒤에 붙어) 은.
브름	명사	‘바람’의 옛말.
애	조사	(일부 체언류 뒤에 붙어) 애.
뛰다	동사	‘움직이다’의 옛말.
-르썩	어미	(동사,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기에. -므로.
물	명사	‘물’의 옛말.
ㄱ물	명사	‘가물(=가뭄)’의 옛말.
꺠다	동사	‘끊어지다’의 옛말.

1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는 **너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
- 나는 **꽃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
- 네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
- 교실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다.  
㉣

- ① ㉠과 ㉢은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② ㉠과 ㉢은 자립하여 쓰일 수 없으므로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과 ㉣은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사용된다.
- ④ ㉡과 ㉣은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된다.
- ⑤ ㉡과 ㉣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15. (가)를 바탕으로 (나)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근’은 실질 형태소 ‘나무’가 형식 형태소 ‘은’ 앞에서 ‘남’으로 나타난 것이겠군.
- ② ‘브르매’와 ‘ㄱ므래’는 각각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이겠군.
- ③ ‘펼썩’은 의존 형태소 ‘뛰-’와 의존 형태소 ‘-르썩’로 이루어진 말이겠군.
- ④ ‘므른’의 ‘물’은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이면서 동시에 최소의 자립 형식이기도 하겠군.
- ⑤ ‘그츨썩’은 형식 형태소 ‘꺠-’에 형식 형태소 ‘-르썩’이 결합한 단어가겠군.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보 기>

- [중세 국어] 잣 ㉠ **얏** ㉡ **보뵈** 플와 나모썩
- [현대 국어] 성(城)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
- [중세 국어]烽火 ㉢ **석드를** ㉣ **니세시니**
- [현대 국어]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 [중세 국어] 첫소리를 ㉤ **쓰느니라**
- [현대 국어] 첫소리를 쓰느니라.

- ① ㉠을 보니 ‘ㅅ’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② ㉡을 보니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그 형태를 밝혀 적었군.
- ③ ㉢을 보니 ㅅ물은 현대 국어 ‘달을’과 달리 모음조화를 지켜 표기하였군.
- ④ ㉣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을 사용하였군.
- ⑤ ㉤을 보니 첫 음절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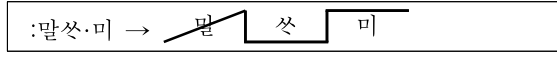
1) 2016년 11월 고2 모의고사 문법 14-15번

2) 2016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법 16번 문제

14.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sup>3)</sup>

< 보 기 >

**선생님** : 중세 국어에서는 각 글자의 왼편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습니다.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 점이 한 개면 높은 소리, 점이 두 개면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가령 '말·쓰·미'는 다음과 같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의 밑줄 친 ㉠는 소리의 높낮이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불·휘기·픈남·근·벽·르·매 ㉠ 아·니·필·씩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장 중에서

- ① 아 니 필 썩
- ② 아 니 필 썩
- ③ 아 니 필 썩
- ④ 아 니 필 썩
- ⑤ 아 니 필 썩

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과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sup>4)</sup>

< 보 기 >

중세 국어 의문문의 종결어미는 인칭의 종류와 물음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주어가 1, 3인칭일 경우,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에는 '-고', '-고'와 같은 '오'형 어미가 사용되었고, 물음말이 없는 의문문에는 '-가', '-가'와 같은 '아'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일 경우, 물음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가 사용되었다.

- 부테 世間에 ㉠ (부처가 세간에 나신 것인가?)
- 네 뉘손디 글 ㉡ (너는 누구에게서 글을 배웠는가?)
- 어느 사르미 少微星이 잇다 니르던고 (어떤 사람이 소미성이 있다고 말하던가?)

- |         |      |
|---------|------|
| ㉠       | ㉡    |
| ① 나샤미신가 | 비혼다  |
| ② 나샤미신가 | 비호논고 |
| ③ 나샤미신고 | 비혼다  |
| ④ 나샤미신다 | 비호논고 |
| ⑤ 나샤미신다 | 비호논가 |

3) 2017년 3월 고2 모의고사 문법 14번  
4) 2017년 6월 고2 모의고사 문법 15번

15. <보기>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5)</sup>

< 보 기 >

- ㉠ 효도흙과 공순호물 (효도함과 공순함을)
- ㉡ 兄(형)기 ㉢ 뜨디 일어시닐 ㉣ 聖孫(성손)을 ㉤ 내시니이다 (형의 뜻이 이루어지시매 (하늘이) 성손을 내셨습니다.)
- ㉥ 世尊(세존)스 安否(안부) ㉦ 물좁고 니르샤디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이르시되 무슨 까닭으로 오셨습니까?)

- ① ㉠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군.
- ② ㉡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군.
- ③ ㉢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되었군.
- ④ ㉤을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군.
- ⑤ ㉥을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특수어휘가 사용되었군.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6)</sup>

< 보 기 >

(가) 주거미 날오되 “내 하마 명종(命終)호라”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주검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죽었다.”

(나) 내 롱담하더라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내가 농담하였다.

(다) 네 이제 또 물는다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네가 이제 또 묻는다.

(라) 하늘히며 사름 사는 짜홀 다 피호아 세계(世界)라 흐느니라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다 모아서 세계라 한다.

(마) 내 이제 분명(分明)히 너드려 닐오리라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내가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겠다.

- ① (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 ② (나): 주어가 1인칭이므로 선어말 어미 '-다-'를 사용하여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 ③ (다): 선어말 어미 '-느-'를 통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 ④ (라):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군.
- ⑤ (마):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5) 2017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법 15번  
6) 2017년 11월 고2 모의고사 문법 15번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7)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는 문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격 조사의 차이도 그중 하나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를, 목적격 조사로 ‘을/를’을, 관형격 조사로 ‘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오늘날 보다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먼저 주격 조사는 ‘이’만 사용하였는데, 이때 ‘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썼지만,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면 ‘ㅣ’를 붙여 썼고, ‘ㅣ’로 끝나면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람’에는 ‘이’가 붙고, ‘부터’에는 ‘ㅣ’가 붙는다. 그러나 ‘비’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격 조사를 붙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목적격 조사는 ‘을/을/를/를’을 사용하였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을/을’, 모음으로 끝날 경우 ‘를/를’로 표기하였다. 또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을/를’로, 음성 모음이면 ‘을/를’로 표기하였다. 각각의 상황을 예로 들면, ‘ㅁ슴’에는 ‘을’이, ‘구름’에는 ‘을’이, ‘나’에는 ‘를’이, ‘너’에는 ‘를’이 붙는다.

끝으로 관형격 조사는 단어의 의미와 음운 환경에 따라 ‘의/의’와 ‘ㅅ’을 사용하였다. ‘의/의’는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 사용하였는데,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의’를, 음성 모음일 때는 ‘의’를 사용하였다. ‘ㅅ’은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거나,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닐 때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늬’는 사람이고 ‘·(아래아)’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붙고, ‘별’은 동물이고 ‘ㅣ’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붙는다. 반면에 ‘부터’는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ㅅ’이 붙는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중에는 중세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 ② 중세 국어에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③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더 다양하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예외 없이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고 자음으로 끝나면 목적격 조사로 ‘을’을 사용하였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7) 2018년 6월 고2 모의고사 국어 문법 11-12번

1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조사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중세 국어] 거북+㉠ 터리 곧고  
 [현대 국어] 거북의 털과 같고

[중세 국어] 하늘+㉡ 光明이 문득 번흐거늘  
 [현대 국어] 하늘의 광명이 문득 흰하거늘

- |   |   |   |
|---|---|---|
|   | ㉠ | ㉡ |
| ① | 의 | ㅅ |
| ② | 이 | 의 |
| ③ | 의 | 의 |
| ④ | 이 | ㅅ |
| ⑤ | 의 | 의 |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8)

— < 보 기 > —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라졌다.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그런데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 가칠 므러 (뱀이 까치를 물어)
- ㉡ 기픈 남근 (뿌리가 깊은 나무는)
- ㉢ 세상에 나매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

- |   |     |     |      |
|---|-----|-----|------|
|   | ㉠   | ㉡   | ㉢    |
| ① | ㅅ압  | 불휘ㅣ | 대장뷔  |
| ② | ㅅ압  | 불휘ㅣ | 대장뷔ㅣ |
| ③ | ㅅ야미 | 불휘  | 대장뷔  |
| ④ | ㅅ야미 | 불휘  | 대장뷔ㅣ |
| ⑤ | ㅅ야미 | 불휘ㅣ | 대장뷔  |

8) 2018년 9월 고2 모의고사 국어 문법 15번

15. <보기 1>은 중세 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고, <보기 2>는 현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보기 2>를 참고하여 ㉠ ~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

<보기 1>

[중세 국어] 보살(菩薩)이 ㉠어느 나라해 느리시게 흐려뇨  
[현대 국어] 보살이 어느 나라에 내리시도록 하려는가?

[중세 국어] ㉡어느 구더 병불쇄(兵不碎) 흐리잇고  
[현대 국어] 어느 것이 굳어 군대가 부수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세 국어] 저문 아히 ㉢어느 듣즈보리잇고  
[현대 국어] 어린 아이가 어찌 들겠습니까?

[중세 국어] 미혹(迷惑) ㉣어느 풀리  
[현대 국어] 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겠는가?

[중세 국어] 이 두 말을 ㉤이늘 중(從) 흐시려뇨  
[현대 국어]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보기 2>

- 어느 01 「관형사」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 어느 02 「대명사」 『옛말』  
어느 것.
- 어느 03 「부사」 『옛말』  
'어찌'의 옛말.

- ①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은 <보기 2>의 '어느 01'과 품사가 같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은 <보기 2>의 '어느 02'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은 <보기 2>의 '어느 03'으로 쓰여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보기 2>의 '어느 01'과 '어느 03'을 참고해 보니 ㉣과 '어느 01'은 품사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에 사용된 '어느'는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인 <보기 2>의 '어느 0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9) 2018년 11월 고2 모의고사 국어 문법 15번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보 기>

[중세 국어]

나라히 과망(破亡)흐니 :과·과 ㅁ·릅:썸 잇고  
·갓 ·앗 보·릭 ·플·와 나모:썸 가·헛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嘆)·호니 고·지 ·눅·므를 썸·리게 ·코  
여·회여·슈를 슬·후니 :새 ㅁ·스·물 :놀·래·느·다  
봉화(烽火) ] :석·드·롤 나·세·시·니  
자·빛 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스·도·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언해』 중에서 -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이 깊어 있도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도다.

- ① '보·릭'은 현대 국어의 '봄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끊어 적기를 하였군.
- ② '플·와'가 현대 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방점이 쓰였군.
- ③ '썸·리게'가 현대 국어의 '뿌리게'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군.
- ④ 'ㅁ·스·물'이 현대 국어의 '마음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ㅁ', '·'가 사용되었군.
- ⑤ '드·롤'이 현대 국어의 '달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

[11 ~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1)

[대화]

학생 A : '범씨'는 '벼'와 '씨'가 결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왜 '벼씨'가 아니라 '범씨'야?  
학생 B : 그리고 보니 '살'과 '고기'가 결합한 말도 '기'이 'ㅋ'으로 바뀌어서 '살코기'로 쓰이고 있어.  
학생 A : 그렇구나. 왜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자료]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ㅂ'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현대 국어의 '벼+씨→범씨'에서 'ㅂ'이 생겨나는 이유는 '벼>씨'의 변화와 관련이

10)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6번 (2016년 7월 시행)  
11) 2016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1-12번

있다. 15세기에는 ‘ㅍ’의 어두에 ‘ㅂ’이 있었는데, 당시 ‘ㅍ+ㅍ →ㅍㅍ’가 만들어진 후 나중에 ‘ㅍ’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ㅍㅍ’와 같은 어형이 생성되었다. ‘ㅍ>ㅍ’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ㅂ’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복합어 속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현대 국어에서 확인된다.

15세기 국어에는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ㅎ’ 역시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단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ㅎ’ 종성 체언이었던 ‘슬ㅎ’을 살펴보자.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슬ㅎ+이→슬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의 ‘살+고기→살고기’에서 ‘ㄱ’이 ‘ㅋ’으로 바뀌는 이유 역시 ‘슬ㅎ>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ㅎ’ 종성이 뒤에 오는 ‘ㄱ, ㄷ, ㅂ’과 결합하여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슬ㅎ’이 ‘고기’와 결합한 말이 만들어질 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었으므로 ‘살고기’와 같은 어형이 생성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의 ‘ㅎ’ 종성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살고기’ 외에도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다.

11. 위 ‘대화’와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에서 ‘ㅍ’의 어두에 있는 ‘ㅂ’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군.
- ② 15세기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단일어에서 훗날 탈락하였군.
- ③ 15세기 국어의 ‘ㅎ’ 종성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겠군.
- ④ 현대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군.
- ⑤ 현대 국어의 ‘살고기’에서 ‘ㅋ’은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단어에 남아 있는 것이군.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2.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
- a. 뽕쌀: ‘뽕-’와 ‘쌀’이 결합한 말인데, ‘쌀’은 옛말 ‘쌀’에서 온 말이다.
  - b. 햅쌀: ‘햅-’와 ‘쌀’이 결합한 말인데, ‘쌀’은 옛말 ‘쌀’에서 온 말이다.
  - c. 수쟁: ‘수-’와 ‘쟁’이 결합한 말인데, ‘수’는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d. 안팎: ‘안’과 ‘팍’이 결합한 말인데, ‘안’은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e. 들뜨다: ‘들다’와 ‘뜨다’가 결합한 말인데, ‘뜨다’는 옛말 ‘뜨다’에서 온 말이다.

	㉠	㉡
①	a, b	c
②	a, e	c
③	a, b	d
④	b, e	d
⑤	a, b, e	c, d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sup>12)</sup>

<대화 1>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 그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

12)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1-12번(2016년 6월 시행)



과 '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ㅅ'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박'와 '저서'는 '빙'과 'ㅅ'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박' > '도와', '더벅' > '더위'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ㄱ' 앞에서는 반모음 'ㅇ' / 'ㄷ' [w]로 바뀌었고, '도박 시니' > '도오시니', '서볼' > '서울'에서와 같이 'ㅇ' 또는 'ㄷ'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ㅇ' 또는 'ㄷ'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ㅅ'은 16세기 중엽에 '아ㅅ' > '아으', '저서' >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서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서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 A : 자료를 보니 '빙', 'ㅅ'이 사라지면서 '도박'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밤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박'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뚝고'와 현대 국어의 '뚝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이) 굽다	굽게	고박	고본	굽게	고와	고은
② (선을) 굶다	긱게	그어	그은	긱게	그서	그은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버	누본	눅게	누위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잡게	자바	자본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3)

- < 보기 >
- (가) 하늘 버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 (나) 王이 부터를 請흐스보쇼서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 (다) 어마니를 아라보리로소니잇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 (라) 내 이를 위호 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 내가 이를 위해서)
- (마) 그 물 미트 金물에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① (가) : 부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 ② (나)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술 -'이 쓰였다.
- ③ (다) : 관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 ④ (라)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 ⑤ (마) :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14)

< 보기 >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ㅁㅅㅁ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自然히 ㅁㅅㅁ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홀어

㉣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ㅁㅅㅁ라  
 [현대 국어] 산심은 홀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가) .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13)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문법 15번(2016년 9월 시행)  
 14) 2017학년도 수능 국어 문법 13번(2016년 11월 시행)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15)</sup>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한 형태소 내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ㅏ, ㅑ, ㅓ’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ㅗ’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렸다. 중성 모음 ‘ㅣ’는 양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을/을, 를/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은/-은’, ‘-음/-음’, ㉠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조사 ‘도’, ‘와/과’나 어미 ‘-고’, ‘-더-’ 등은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 조화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ㅓ’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ㅓ’가 소실되면서 주로 ‘-어’에 합류하였다. 첫째 음절에서의 ‘ㅓ’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ㅓ’ 대신 음성 모음인 ‘-어’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언에 연결되는 ‘은/은’, ‘을/을’, ‘의/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 조화를 지키던 ‘사슴’과 같은 단어들은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의 ‘ㅓ’가 주로 ‘ㅏ’에 합류하면서 ‘ㅓ’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 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출렁출렁’,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용언 어간	활용형	용언 어간	활용형
①	알-	아라	알-	알아
②	먹-	머거	먹-	먹어
③	씨오-	씨와	깨우-	깨워
④	쁘-	뼈	쓰-	써
⑤	ㄱ득ㅎ-	ㄱ득ㅎ야	가득하-	가득하여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5) 2017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5-16번

15.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겨스레 소음 든 오솔 님디 아니 호고 녀르메 서늘흔 디 가디  
아니 호며 호르 벌 두 호브로써 죽을 밍글오 소곰과 녹물홀 먹디  
아니 호더라  
- 『내훈』(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숨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  
하며 하루 쌀 두 홉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곰과 나물을 먹지 아니  
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곰과 계즈 ㄱ과와 파과 마늘과 부치와 기  
름과 댓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녹물과 둥기 알과  
- 『박통사언해』(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곰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  
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호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솔’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호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둘째 음절의 ‘ㅓ’가 ‘-어’로 변하였음을 (가)의 ‘녹물’과 (나)의 ‘나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14 ~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16)</sup>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에 의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도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습-’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줍-, -술-, -술-, -졸-’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16) 2017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4-15번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 | ㉠ 깃스븨니  
[현대어 풀이]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聖孫(성손)이 ㉡ 一怒(일노) 하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 | 洛陽(낙양)에 ㉢ 울므니이다  
[현대어 풀이]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 聖宗(성종)을 ㉣ 뵈셔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현대어 풀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하늘히 駙馬(부마) 달애샤 두 孔雀(공작)일 ㉤ 그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부마를 달래서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술-'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의 주체와 청자인 상대방을 모두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17)

— < 보 기 1 > —

주체 높임에는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 < 보 기 2 > —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뵈고 왔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직접 높임	간접 높임		
①	×	○	○	높임
②	×	○	×	낮춤
③	○	×	○	높임
④	×	○	×	낮춤
⑤	○	×	○	낮춤

17) 2017년 4월 시행, 2017학년도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1 ~ 15번

1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18)

— < 보 기 1 > —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상네 쓰는 헛 일후미라(일흠+이라)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거신 부테시니라(부터+ㅣ시니라) (생불은 살아계신 부처이시다)

— < 보 기 2 > —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ㅣ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ㅣ라
④	니라	배라	다락기라
⑤	니ㅣ라	바이라	다락기라

15.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9)

— < 보 기 > —

㉠ 나랏 말쓰미 中囡國귀에 달아 文문字字중와로 서로 스뵈미 아니홀쵸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 니르고져 흠 ㉢ 배 이셔도 므츨내 제 ㅼ들 시리 ㉣ 퍼디 문흠 노미 하니라 내 ㉤ 이를 爲嵬형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듬 字字를 밍ᄃ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너겨 날로 ㅼ매 便便안한리 ㅎ고져 흠 쓰르미니라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의 '스'는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② ㉡의 '-고져'는 현대 국어의 '-고자'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로 쓰였군.
- ③ ㉢의 'ㅣ'는 주격 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군.

18) 2017년 6월 시행,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문법 15번  
19) 2017년 7월 시행, 2017학년도 7월 고3 학력평가 11번~15번.



- ④ ㉔과 현대 국어의 ‘퍼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 ⑤ ㉔의 ‘탈’은 목적격 조사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14.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㉔~㉗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

—<보 기1>—

- ㉔ 설명 의문문과 관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㉕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㉖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㉗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㉘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보 기2>—

- ㉔ 모습 마탈 니르느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㉕ 저으며 늘구미 잇느녀 [짧으며 늙음이 있느냐?]
- ㉖ 虛空과 벼를 보더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 ㉗ 世尊하 내 堂中에 이서 문져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㉔의 ‘니르 느 뇨’와 ㉕의 ‘잇느 녀’를 비교해 보면, ㉔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㉔의 ‘마탈 ’과 ㉖의 ‘벼를’을 비교해 보면, ㉔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㉕의 ‘世尊하’를 보면, ㉖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㉖의 ‘보더시니’를 보면, ㉗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㉕의 ‘보습 고’를 보면, ㉗을 확인할 수 있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1)

현대 국어에서 사동 표현은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거나,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서술어가 형용사나 자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ㄱ)과 사동문 (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 (ㄱ) 얼음이 녹는다.  
(ㄴ)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한편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ㄷ)과 사동문 (ㄹ)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 (ㄷ) 영희가 책을 읽었다.  
(ㄹ) 선생님께서 영희에게 책을 읽히셨다.

한편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을 단형 사동문이라 하고, ‘-게 하다’에 의한 사

동을 장형 사동문이라 한다. 사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사동 행위를 받는 대상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를 직접 사동문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접 사동문이라 하는데, 단형 사동은 맥락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나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해석만을 허용한다.

15세기 국어에서 사동 범주는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으-/으-’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게 ㅎ다’에 의해 만들어졌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㉔~㉗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㉔ 얼음 위에서 팽이가 돈다.  
㉕ 지원이가 그 일을 맡았다.  
㉖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㉗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 ① ㉔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㉔의 주어는 목적어로 바뀔 것이다.
- ② ㉕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③ ㉖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㉕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뀔 것이다.
- ④ ㉗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⑤ ㉗은 ㉖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㉔~㉗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15세기 국어] ㄹ때 비 업거늘 ㉔ 얼우시고  
[현대 국어] 강에 배가 없으므로 (강물을) 얼리시고
- [15세기 국어] 목수를 ㉕ 일케 ㅎ야뇨  
[현대 국어] 목숨을 잃게 하였는가
- [15세기 국어] 比丘란 노피 ㉖ 안치시고  
[현대 국어] 비구는 높이 앉히시고
- [15세기 국어] 나랏 小民을 ㉗ 사르시리잇가  
[현대 국어]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시겠습니까
- [15세기 국어] 투구 아니 ㉘ 뵈기시면  
[현대 국어] 투구를 아니 벗기시면

- ① ㉔은 동일한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다른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㉕은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15세기 국어의 ‘-게 ㅎ다’가 쓰인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㉖은 15세기 국어에서 어근과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④ ㉗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에서 쓰인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⑤ ㉘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어근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는군.

20)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문법 14번(2017년 9월 시행)  
21) 2017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4-15번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22)</sup>

국어의 단어들은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A]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름고 (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22) 2018학년도 수능 국어 문법 11-12번 (2017년 11월 시행)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노 (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이 누고 (네 스승이 누구인가?)
- 너닌 누구 (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 (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혼 벗은 누고고 (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15.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23)</sup>

— < 보기 > —

학습 활동	다음 자료를 보고, 중세 국어의 조사에 대해 탐구해 보자.
학습 자료	ㄱ. 득리 즘은 마르매 비취요미 굳흐니라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침과 같으니라) ㄴ. 네 후(後)에 부테 드외야 (네가 후에 부처가 되어) ㄷ. 부텃 모미 여러 가짓 상(相)이 마즈샤 (부처의 몸이 여러 가지의 상이 갖춰져 있으시어) ㄹ. 사스미 등과 도즈기 입과 눈 (사슴의 등과 도적의 입과 눈) ㅁ. 사르미 모물 득(得)호고 부터를 만나 잇느니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활동 결과	(가)

23)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5번

- ① ㄱ의 ‘드리’와 ‘비취요미’에서 ‘이’가 각각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② ㄴ의 ‘네’에서 ‘ㅣ’가 주격 조사로, ‘부테’에서 ‘ㅣ’가 보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③ ㄷ의 ‘부텨’와 ‘가짓’에서 ‘ㅅ’이 모두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④ ㄹ의 ‘사스막’과 ‘도즈기’에는 ‘이’가 각각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⑤ ㅁ의 ‘모뎡’, ‘부터’에는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24)</sup>

<보 기>

(가)

**[중세]** 只솔히 멀면 乞食히디 어렵고

**[현대어 풀이]**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고

- 「석보상절」 -

(나)

**[중세]** 이 東山은 남기 도홀씩 노니는 짜히라

**[현대어 풀이]** 이 동산은 나무가 좋으므로 내가 노니는 땅이다.

- 「석보상절」 -

(다)

**[중세]** 불휘 기픈 남근 ㅼ르매 아니 ㅼ씩 ㅼ ㅼ도고 ㅼ름 하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용비어천가」 -

- ① (가)의 ‘乞食히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절을 만들 때 ‘-디’가 사용되었군.
- ② (나)의 ‘남기 도홀씩’이 ‘이 東山은’의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서술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다)의 ‘ㅼ도고’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고’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가)의 ‘只솔히 멀면’과 (다)의 ‘불휘 기픈’을 보니 ‘-(으)ㄴ’이 붙어 관형절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나)의 ‘도홀씩’과 (다)의 ‘ㅼ씩’을 보니 현대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표지가 사용되었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25)</sup>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24)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5번

25)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문법 11-12번(2018년 6월 시행)

[A]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

한편 이들 ‘-(으)ㄴ’과 ‘-이’가 중세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으)ㄴ’은 중세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어미 ‘-음/음’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흔 거를 나소 거를(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확인된다. ‘걷-’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으)ㄴ’과 ‘-음’이 각각 결합한다.

앞서 말한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 /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나뭇 노퍽(나무의 높이)’와 ‘노퍽 ㄴ는 저비(높이 나 는 제비)’에서 확인된다.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 없이 ‘-이’가 결합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흔 여름 여루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 ② ‘거름’과 ‘거름’의 형태를 보니, ‘거름’은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 ③ ‘거름’과 ‘노퍽’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 국어 ‘높-’에는 ‘-음’이 아니고 ‘-음’이 결합하겠군.
- ④ ‘노퍽’과 ‘노퍽’의 형태를 보니, ‘노퍽’은 파생 부사이고 ‘노퍽’은 파생 명사이겠군.
- ⑤ 중세 국어의 형용사 ‘곧다’, ‘굳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1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 ① [ 많이 앞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 ② [ 멸치 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 ③ [ 요즘은 상품을 큰 뭍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무용수들이 군무를 출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 ④ [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 ⑤ [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합성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26)</sup>

<보 기>

(가) 賈餗이 슬허 <b>눈뜨</b> 를 내요되	<번역 소학>
[현대 국어] 가슴이 슬퍼 눈물을 흘리되	
(나) 흘기 어울워 <b>즌흠굴</b> 밍궤라	<능엄경언해>
[현대 국어] 흠에 어울러 진흠을 만들어	
(다) 그되 가아 <b>아라듣게</b> 니르라	<석보상절>
[현대 국어] 그대가 가서 알아듣게 말하라.	
(라) 그지업슨 소리 世界에 <b>숫나디</b> 묻호면	<월인석보>
[현대 국어] 끝이 없는 소리가 세계에 솟아나지 못하면	
(마) 싸하셔 <b>소사나신</b> ... 菩薩 摩訶薩이	<석보상절>
[현대 국어] 땅에서 솟아나신 ... 보살 마가살이	

- ① (가)의 ‘눈뜨’는 현대 국어의 ‘눈물’과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즌흠’은 현대 국어의 ‘진흠’과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아라듣다’는 현대 국어의 ‘알아듣다’와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④ (라)의 ‘숫나디’는 현대 국어의 ‘솟아나다’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⑤ (라), (마)를 보니 현대 국어의 ‘솟아나다’는 중세 국어에서 두 가지 합성어의 형태로 모두 쓰였다고 볼 수 있겠군.

14. <보기>의 ㉠ 과 ㉡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sup>27)</sup>

<보 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어간 말음 조건	형태	용례
‘ㄱ, ㅂ, ㅅ, ㅎ’일 때	-습-	돕습고
‘ㄷ, ㅈ, ㅊ’일 때	-줍-	묻줍고
모음이나 ‘ㄴ, ㄹ’일 때	-습-	보습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술-, -줄-, -술-’으로 실현되었다.

-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 ㉠ )이다.
  - 王(왕)이 부텃기 더욱 敬 信(경신)흔 믈스를 내스바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 어간 ‘듣-’과 어미 ‘-으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했다.
  - 내 아래부터 부텃기 이런 마를 묻 ( ㉡ )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으며]

- |             |           |             |           |
|-------------|-----------|-------------|-----------|
| ㉠           | ㉡         | ㉠           | ㉡         |
| ① 王(왕) 듣즈븍며 | ③ 부터 듣즈븍며 | ① 王(왕) 듣스븍며 | ④ 부터 듣즈븍며 |
| ② 王(왕) 듣스븍며 | ⑤ 믈스 듣스븍며 |             |           |

26)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2번  
27)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문법 14번 (2018년 9월 시행)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28)</sup>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나 객체로 표현되는 인물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대개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현대 국어의 간접 높임에서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임으로써 실제 높여야 할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하였다.

- (1) 太子(태자) | 東門(동문) 밧기 나가시니  
(태자께서 동문 밖에 나가시니)
- (2) 부텃 누니 비록 **볼궤**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1)의 ‘-시-’와 (2)의 ‘-으시-’는 모두 현대 국어의 ‘-(으)시-’처럼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1)과 (2)에 쓰인 ‘-(으)시-’의 쓰임에는 차이가 있다. 즉 (1)에서는 주체인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2)에서는 ‘부텃’의 신체 부분인 ‘눈’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모시다’, ‘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활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였다.

- (3)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호노니  
(너희 스승을 뵙고자 하나니)
- (4) 부텃 教化(교화)를 **돕습고**  
(부처의 교화를 돕고)

(3)의 ‘-습-’과 (4)의 ‘-습-’은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3)과 (4)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차이가 있다. 즉 (3)에서 ‘-습-’은 객체인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비해, (4)에서 ‘-습-’은 ‘教化(교화)’를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王(왕)이 일후믄 濕波(습파)   러시니 (왕의 이름은 습파이시더니)
ㄴ. 님금 恩私(은사)를 <b>값습고</b> 져 (임금의 은사를 값고자)
ㄷ. 龍王(용왕)이 世尊(세존)을 <b>보습고</b> (용왕이 세존을 뵙고)
ㄹ. 太子(태자)   講堂(강당)애 <b>모도시니</b> (태자께서 강당에 모으시니)
ㅁ. 諸佛(제불)을 供養(공양)호습게 호쇼셔 (제불을 공양하게 하소서)

- ① ㄱ에서는 ‘-시-’를 통해 ‘일후믄’을 높임으로써 ‘王(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② ㄴ에서는 ‘-습-’을 통해 ‘恩私(은사)’를 높임으로써 ‘님금’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③ ㄷ에서는 ‘-습-’을 통해 ‘世尊(세존)’을 높임으로써 ‘龍王(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④ ㄹ에서는 ‘-시-’를 통해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⑤ ㅁ에서는 ‘-습-’을 통해 ‘諸佛(제불)’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28)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법 14-15번

15. 다음은 윗글과 관련된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학생 2'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활동] 문맥을 고려하여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의 기준을 세워 분류하시오.

- 우리 할아버지의 치아는 여전히 ㉠ 튼튼하시다.
- 언니가 고모님을 공손하게 안방으로 ㉡ 모시다.
- 아버지께서는 저녁거리를 사러 장에 ㉢ 가시다.
- 형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생각이 ㉣ 타당하시다.

학생 1



나는 '㉡,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나는 '㉡'와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학생 2

- ① 소유물을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② 높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의 여부
- ③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
- ④ 신체 부분을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활용되는가의 여부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29)</sup>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밭', '술', '이틀'이 ㉠'밭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밭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밭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밭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밭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밭 엄지 가락(엄지밭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밭 가락'은 현대 국어 '밭가락[밭까락]'이 되었다.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술'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ㄹ'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 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술'의 'ㄹ'이 탈락하였다.

[A]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틀'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툷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툷 밤', '이툷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툷 날'은 '이툷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ㄹ'이 탈락한 합성어 '이툷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툷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툷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물 사람'에서 온 '뭇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들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 보기 >

무술(물+술)	쌀가루(쌀+가루)
날알(날+알)	술방울(술+방울)
선달(선+달)	푸나무(풀+나무)

- ① 술방울, 무술, 날알
- ② 술방울, 푸나무, 선달
- ③ 푸나무, 무술, 선달
- ④ 쌀가루, 푸나무, 날알
- ⑤ 쌀가루, 술방울, 선달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탐구 주제]

◦ '술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자료]

중세 국어의 예	
· 술 자브며 저 논느니(술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숲 근 (술가락의 끝), 젓 가락 근 (젓가락 끝), 수저 (수저)	
· 물 (무리), 뭇 사람 (뭇사람, 여러 사람)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 숯가락 장스 (술가락 장사)	· *술로 밥을 뜨다
· 뭇사람 (뭇사람)	· 술가락으로 밥을 뜨다
	· 밥 한 술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중세 국어 '술'과 '저'는 중세 국어 '이틀'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군.
- ②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 ③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틀'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근대 국어 '숯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술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 ⑤ 현대 국어 '술가락'과 '뭇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숲'과 '뭇'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29) 2019학년도 수능 국어 문법 12-13번



**정 답**

2016년 11월 고2 모의고사	14	③	15	⑤
2016년 9월 고2 모의고사	16	②		
2017년 3월 고2 모의고사	14	②		
2017년 6월 고2 모의고사	15	①		
2017년 9월 고2 모의고사	15	⑤		
2017년 11월 고2 모의고사	15	⑤		
2018년 6월 고2 모의고사	11	④	12	①
2018년 9월 고2 모의고사	15	③		
2018년 11월 고2 모의고사	15	⑤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	16	①		
2016년 10월 고3 모의고사	11	③	12	③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1	②	12	①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5	⑤		
2017학년도 수능	13	③		
2017년 3월 고3 모의고사	14	⑤	15	④
2017년 4월 고3 모의고사	15	④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5	④		
2017년 7월 고3 모의고사	15	⑤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4	⑤		
2017년 10월 고3 모의고사	14	⑤	15	⑤
2018학년도 수능	11	④	12	①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15	④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15	④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1	④	12	④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12	②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4	③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14	③	15	③
2019학년도 수능	12	②	13	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http://www.facebook.com/LegendStudy)